

# 예산 정동호가옥의 입지와 공간배치에 대한 연구

- 풍수 형세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ocation and Space Layout of Traditional House of Jeong Dong-Ho

- Focused on the Hyungsei-ron of Pungsu(Fengshui) -

한 중 구\*  
Han, Jong-Koo

### Abstract

Pungsu theory is important one in the site selection and lay-out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and house. In this aspect, Study with a view of Pungsu theory might be used as a proper method for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Jeong, Dong-Ho's house which is designated no. 19 as an important folk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Jigok Ochu-gil 133-62, Godeok-myon, Yesan-gun, Chungnam province. The analysis of the site and space lay-out is carried out by Yong(Dragon), Hyoel(Auspicious Spot), Sa(Sands), Su(Water) aspects of the Pungsu(Fengshui) Hyungsei-ron. The house is depending upon soft dragon vein connecting with a earth type rear mountain. It looks southeast direction, Gonjwasonhyang(乾坐巽向). The hyeolseong(穴星) has classical venus shape, and there is no faults relatively. The Sasinsa condition is almost perfect that right blue dragon and left white tiger surround the hyeol with 3-4 layers and the facing mountain covers the front open area. The water flowing from inside of left and right mountain is joined in front of the house so it could stop flowing out of vital energy. Bibo forest(裨補樹) is placed properly to protect the easy disclose of water outlet. The house is well organized western house(西四宅) by analysis of Dongseosataek-ron(東西四宅論). Through the analysis, I found that the house has good Pungsu(Fengshui) environment fitted with Pungsu Hyungsei-ron. The house composed of small thatched roof is enclosed several times by low hills of back, left and right side. So it is believed that the site might be carefully evaluated by Yong, Hyoel, Sa, Su of Hyeongsei-ron for knowing whether the site condition could minimize the damage by strong winds and protect from the winter cold wind and secure water for drinking and farming and then selected. The method of Pungsu for evaluating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surrounding of a site is used as a traditional site analysis method for evaluating the suitability of long-term well and safe residence.

주요어 : 정동호가옥, 풍수, 형세론, 입지, 공간배치, 예산

Keywords : Jeong Dong-Ho's Traditional House, Pungsu(Fengshui), Hyungsei-ron, Site, Space Lay-out, Yesan

### 1. 서론

정동호가옥은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오추2리 568번지)에 있는 가옥으로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 제191호로 지정된 초가이다.

가옥이 소재한 고덕면 지역은 고조선 성계국으로 봉국되어 백제에 속하였는데 백제 25대 무령왕 원년에 성계국을 폐지하고 금물현(일운거물성)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이 백제를 망하게 한 후 가구현이라 칭하였는데, 신라 30대 문무왕이 당을 물리치고 다시 금물현이라 칭하고, 35대 경덕왕에 이르러 금무현으로 개칭하였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 금무현을 덕풍현으로 고치고, 고려 7대 현종 9년에 운주(현 홍성)에 속하게 하였다.

\*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at Incheon, jkhan@chungwoon.ac.kr)

본 논문은 2017년도 청운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16년 한옥문화 42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덕풍, 이산, 이현을 합병하여 덕산현으로 칭하고, 덕산현 고현내면으로 개칭하여 석곡, 신동 등 17개 리를 관할하였으나, 1914. 4. 1. 부·군·면 폐합에 따라 도 용면의 11개 리, 거등면의 3개 리, 고산면의 21개 동리와 대오지면의 하룡리를 병합·편입하여 예산군 고덕면이라 칭하고, 26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여 왔으며, 1991년에 27개리로 개편되었고, 1996년에 다시 28개리로 개편(용3리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고덕면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고현내면의 ‘고(古)’자와 덕산현의 ‘덕(德)’자를 따서 고덕(古德)이라 불렀다고 한다. 오추리(梧楸里)는 본래 덕산군 고산현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촌, 추동, 지곡, 일부를 병합하여 오촌과 추동의 이름을 따서 오추리라 하여 예산군 고덕면에 편입되었다.<sup>1)</sup> 가옥은 오추2리 배미골에 위치한다. 이름에서 벽오동나무 오(梧)와 개오동나무 추(楸)로 보아 오동나무와 연관이 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미골이란 마을이름을 볼 때 뱀이나 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배미골이란 이름은

1) 예산군 고덕면 홈페이지 참조

한국의 여러 마을에 볼 수 있는데 배미가 뱀이 나오는 곳이나 밤나무가 많은 곳에 쓰이기도 하고 또는 배미란 구분된 눈을 세는 단위로 쓰이는 말인데 수 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로 쓰여, 다른 눈과 구분되어 있는 눈의 한 구역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므로, 이 글의 앞에 펼쳐진 논에서 연유된 것으로 사료된다.

정동호가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충남지역의 여러 문화유적에 대한 보고서(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4개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기록화보고서(문화재청, 2012)와 지역의 여러 건축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중 한 사례로 언급(이왕기, 1999)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여러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어서 본 가옥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풍수에 대한 부분은 3줄 정도로 매우 미흡하다. 본 가옥은 조선후기에 건립된 전통가옥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건축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산의 모습이나 물의 흐르는 양상에 따라 길한 터전을 선택하려는 생각은 조선시대 지식층에게는 널리 보편화<sup>2)</sup>되었으며 궁궐에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가 풍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동호가옥을 대상으로 풍수의 형세론적인 관점에서 용, 혈, 사, 수, 향의 5대 요소와 동서사택론을 토대로 당시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과 중국의 중요한 풍수고전의 검토와 고찰을 통해 본 가옥의 입지와 공간배치에 적용된 풍수적인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건축에서 건축물 주변의 산과 물의 물리적 환경 등이 풍수 형세론을 통해 어떻게 해석되고, 이러한 풍수로 이해된 자연 및 지리적 요인들이 건축물의 입지선정과 공간배치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건축물을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가옥의 입지 분석

### 2.1 용<sup>3)</sup>의 분석

가옥의 뒤에 위치한 현무봉(주산)은 정상부가 평평한 모습으로 토성체(土星體)에 해당된다.

토성체에서 내려온 용맥은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가옥 근처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선회(右旋)하면서 가옥으로 내려온다. 생룡으로서 현저한 위이의 모습이나 기복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살아있는 입수용으로서 완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가옥은 우선(右旋)하며 내려오는 용맥을 받으면서 다소 높아 부담스러운 남향과 용호가 벌어지고 수구가 보이는 정동향을 피해 남동향으로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좌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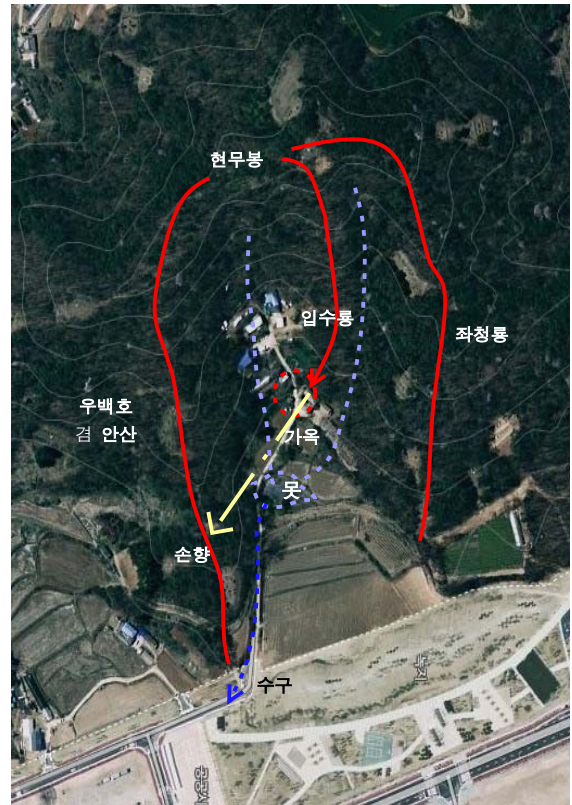


Fig. 1. Dragon(龍) and Sasinsa(四神砂) of the house

### 2.2 혈의 분석

혈은 풍수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혈이란 용의 기가 뭉친 것(穴者龍之所結)’이라는 지리정중(地理正宗) 산룡어류편의 개념 정의가 명쾌하다. 즉 용맥을 따라 흐르는 지기 혹은 생기가 물을 만나 더 이상 흐르지 못하면 뭉치게 되는 데, 이때 전후좌우 주변 산들이 이렇게 뭉친 기운을 흠어지지 않게 하면 그곳이 바로 길지(吉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길지의 판단 여부는 바로 혈이 형성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기가 모여들어 혈을 이룬 것을 결혈(結穴)이라 하고 이러한 산의 형세를 국을 이루었다하여 성국(成局)이라 한다.<sup>4)</sup>

혈의 형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마치 사람의 몸과 얼굴이 제각기 다른 모습들이듯이 혈의 형태도 제각기이다. 한의학에서는 무수한 사람의 체형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의 사상으로 크게 나누어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풍수에서도 혈의 모습을 보고 그 형태를 크게 와검유돌(窩鉗乳突) 4가지로 분류하며 태양은 와혈, 소양은 검혈, 소음은 유혈, 태음은 돌혈로 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음양을 나눌 때 돌출된 것을 양이라고 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풍수지리에서는 그 반대로 해석한다. 즉 볼록하게 돌출하면 음이 되고 오목하게 들어가면 양이다.<sup>5)</sup> 이는 풍수가 혈이 아닌 하늘을 중심으로 음양을 따져보기 때문이다. 지리정중의 산룡어류편에는 사상(四象)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와혈은 곧 혈성이 입을 벌리되 등글게 감싸 안으며 이루어진 것이다. 검혈은 물건을 사이에 끼고 있는 철과 같은 것으로서 두 다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13쪽

3) 용은 산을, 용맥은 산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풍수에서 산줄기의 흐름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변화무상하여 여러 가지로 변화를 부리는 용으로 표현한다.

4)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586~587쪽

5)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299~300쪽

리를 갖추면서 이루어진 것이다.<sup>6)</sup> 유헌은 그 모습이 젓가슴이나 부레 혹은 닭의 심장과 같다. 돌혈은 혈성의 정수리를 일으킨 것을 말하는 데 그 모습이 술단지를 엮어놓은 것과 같다.

혈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혈형(穴形)으로 이는 백물형상(百物形象)의 형이 아니고 양균송의 사상(四象)인 와겸유돌의 형을 말함이고, 둘째, 혈성(穴星)은 구성(九星)을 말함이고 아니고 장자미(張子微)의 金木水火土 오성(五星)을 말하며, 셋째, 혈을 증명하는 것(穴證)은 취(取)이니 전후좌우 용호, 명당 등의 응(應)하는 것을 말함이고 넷째, 혈기(穴忌) 혈로서 꺼리는 것은 분별(辨)해야 하니 조악(粗惡, 조잡하고 험함), 급준(急峻, 급하고 가파른 것), 용종(擁腫, 부스럼), 허모(虛耗, 공허하거나 손상된 것) 등의 흉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星)을 보고 형(形)을 연구하고 증(證)을 살펴보고 기(忌)를 알게 되면 그릇됨에 현혹됨이 없을 것이다.<sup>7)</sup>

인자수지의 방법에 따라 먼저 혈형(穴形)을 보면 현무봉에서 내려온 좌청룡과 우백호가 혈이 위치한 가옥의 좌우로 길게 내려온 것을 보면 물건을 사이에 끼고 있는 모양으로 소양(少陽)에 해당되는 검혈(鉗穴)로 볼 수 있다. 둘째로 혈성은 혈을 정하는 점혈(點穴)을 할 때 입수(入首)의 산이 어는 성체(星體)를 이루는 가를 살피는 것으로 성체가 명백하면 진기(真氣)가 융결(融結)되는 것이나 성체를 분명하게 이루지 못하면 진기는 융결되지 못한다.<sup>8)</sup> 이 책은 아울러 혈성을 정체(正體), 측뇌(側腦), 평면(平面) 등 3가지로 나누고 다시 오성(五星)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체는 성신(星辰; 풍수에서 산을 의미)의 혈성이 단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측뇌는 성신의 두뇌(頭腦)<sup>9)</sup>가 편사(偏斜, 형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짐)한 것을 말하며, 평면은 성신이 땅바닥에 넘어져 형체가 평평한 것이라고 말한다. 가옥의 혈성을 살펴보면 성신은 비교적 단정하게 정체를 이루며 그 모양은 오형으로 둥그런 금성혈(金星穴)이며 금성혈중에서도 신(身)이 낮은 태음금(太陰金) 와혈(窩穴)을 이루고 있어 진기(真氣)가 융결할 수 있는 곳이다.

셋째로 혈증을 대략 살펴보면 전후좌우의 용이 뒤는 높고 앞이 낮은 전저후고를 하고 있고 좌우의 용은 혈 자리의 기운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장풍의 역할을 수행하며 용호의 끝이 혈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오므리고 있으며 그 밖으로 안산이 있어 열려진 부분을 막고 좌우의 물길이 환포하는 등 명당으로서 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혈로서 금기시하는 조악, 준급, 용종, 허모 등을 보면 특별한 조악이 없고, 가옥의 우백호 방향으로 다소 경사가 있으나 그리 급하지는 않고 용종으로 표현되는 부스럼 같은 보기 흉한 부분도 없으며 허모라고 하는 손상된 부분도 딱히 없어 비교적 길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옥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안산역할을 하는 산이 훼손된 점과 가옥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좌청룡의 끝자락이 훼손되고 낮은 둔덕이 만들어져 원경의 조망을 다소 차단하는 점이 아쉽다. 허나 공원으로 조성된 낮은 둔덕은 한편으로 안산이 없어지면 좌청룡과 우백호가 그대로 열리면서 불리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가옥과 가옥이 위치한 마을이 멀리서는 전혀 조망되지 않고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조선시대에 선호하는 외부에서 진입이 어려워 전쟁과 화마의 영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안에 들어오면 집과 전답이 펼쳐진 일종의 신선세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Fig. 2. New park rolled as an Ansan(案山) and Josan(朝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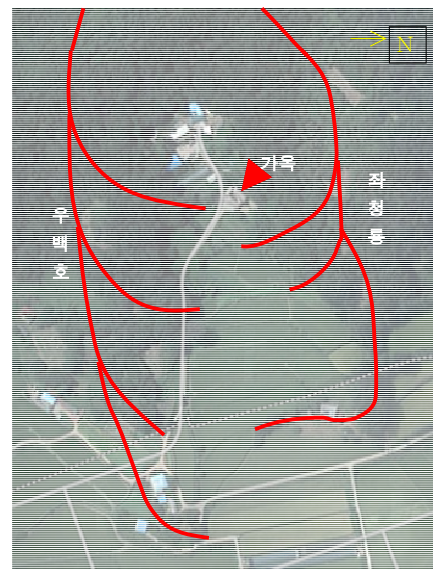


Fig. 3. Analysis of Sasinsa(四神砂)

### 2.3 사의 분석

사(砂)란 전조(前朝, 앞의 조산), 후악(後樂, 혈 뒤의 받쳐주는 산), 좌우용호(左右龍虎 혈 좌우의 좌청룡 우백호), 나성(羅星, 멀리서 혈을 둘러싸고 있는 산), 수구(水口, 물이 빠져나가는 곳), 시위(侍衛, 혈을 뺏는 주룡 이외의 용이 주룡을 보호하기 위해 혈장을 좌우에서 모시는 산) 등 제산(諸山)과 금요(禽曜)·관귀(官鬼, 혈의 전후좌우의 산이 내뿜는 나머지 기운으로 이루어진 산)를 모두 합쳐 사(砂)라고 한다.<sup>10)</sup> 즉 사란 혈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론(龍論)에서는 산을 용(龍)으로 사론(砂論)에서는 별(星)로 본다. 용이 주로 주산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사는 주로 조안(朝案, 혈앞에 있는 산으로 가까우면 안산 그 뒤는 조

6) 鉗子 來物之鐵 兩脚象成者也

7) 서선계, 서선술, 인자수지, 명문당, 2003, 342쪽

8) 서선계, 서선술, 인자수지, 명문당, 2003, 424쪽

9) 현무봉에서 능선을 이루어 혈로 들어가는 입수부분과 혈과 만나는 지점

10) 서선계, 서선술, 인자수지, 명문당, 2003, 624쪽

산)의 개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용을 이야기 할 때는 주로 뒤산, 뒷배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며, 사를 얘기할 때는 주로 앞쪽에 펼쳐진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이 가옥은 가옥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현무봉 정상 의 북쪽 끝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한 지맥은 좌청룡으로 가옥 을 감싸면서 계속 동쪽으로 나아간다. 진행하면서 3겹으로 가 옥을 겹겹으로 보호한다. 또한 현무봉 정상의 남쪽 끝에서 내려 오는 우백호는 가옥의 전면을 감싸면서 동쪽으로 진행하여 가 옥의 안산 역할을 한다. 우백호는 4겹으로 겹겹이 감싸고 있다. 좌청룡과 우백호는 각각 3겹, 4겹으로 감싸는 길한 형태를 하고 있다. 다만 용호가 다소 벌어져 있는 점이 흠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현재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가옥의 동쪽 약 700미터 거리에 나지막한 동산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놓여 가옥의 외청룡 역할과 가옥이 있는 마을의 안산역할을 수행하 면서 막아주고 있어 크게 부족함이 없는 길한 사격을 이루고 있 었다. 허나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평탄화 작업으로 험 린 점은 아쉽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옥의 200미터 앞에 흙을 쌓아 남북으로 300미터 길이의 나지막한 둔덕을 만들어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열린 용호를 막아주며 새로운 가옥의 외청룡과 마을의 안산이 생겼다는 점이다.

안산은 가옥의 우백호가 길게 나아가서 안산을 형성하고 있 는데 가옥에서 보면 둥근 형태의 금성체(金星體)로 현무봉의 토 체와 토생금의 상생관계이며 안산의 좌측(동측)으로 조산이 나 지막하게 도열하여 겹겹이 가옥이 있는 혈을 감싸고 있어 길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Fig. 4 Facing Mountain(案山)

## 2.4 수의 분석

풍수라는 글자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물(水)은 풍수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의 풍수서에서 물을 중요시 하고 있는 데, 금낭경으로도 불리는 풍수의 고전 장서(藏書)에는 기 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界水則止)라고 하면서 풍수에서 물을 얻 는 것(得水)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보다 산지 지형이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물을 통해 길지를 선정하 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장풍 득수(藏風得水)라는 표현처럼 산지가 잘 발달하여 산에 의해 잘 감싸져서 기가 보호될 수 있는 장풍을 보다 중시한다. 물의 중

요성은 사람의 살아가는 거주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 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는 음양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천형세의 모양에 따라 사람에게 미치는 길흉을 분석한 풍수학의 고전으 로 당나라 때 복응천이 저술한 설심부(雪心賦)를 보면 풍수와 음양사상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에 이르기를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라고 일컫는다 하였다. 양이나 음 홀로는 생성하지 못하고 음양이 상배(相配, 서로 짝을 이룸)되 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형세를 논함에 있어 산은 음이요, 수 는 양이다. 무릇 산수가 상배해야 음양이 있는 것이 된다. 산과 수는 모두 정(靜)하면 음이고 동(動)하면 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산수는 각각 음양이 있는 것이다. 음래(陰來)하면 양수(陽受)해 야 하고 양래(陽來)하면 음수(陰受)해야 하니 용혈(龍穴)도 상배 (相配)해야 음양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산과 물이 짝을 이루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수서로 조선시대 채성우가 당시의 고금의 풍수서를 섭렵하여 저술한 명산론(明山論)에도 산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무릇 두 기(二氣)가 융결해야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니 산수를 음양이라 일컫는다. 산수가 상보해야 음양이 화하고 화 해야 충기(充氣)된다. 산수가 취집(聚集, 만나고 모임)해야 음양 이 회(會, 만남)하고 회해야 생기가 있게 되니, 즉 길(吉)하다고 한다.



Fig. 5. Water courses

가옥의 물을 살펴보면 가옥의 좌우로 현무봉에서 내려온 좌 청룡과 우백호의 안쪽으로 골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흘러 가옥 까지 내려오다가 가옥 앞에서 모이고(合水), 가옥에서 90미터

11)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218쪽

앞에 제법 규모가 있는 못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 못에서 나온 물은 우백호를 따라가다 그 끝자락에 해당되는 동구(洞口)에서 수구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은 길한 곳으로 풍수경전에 늪과 물가, 연못과 호수는 진룡이 쉬는 곳이니 진실로 그 안에서 구할 것이요. 삼가 밖에서 찾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형세가 부드럽게 굽어져 있고 지나치지 않게 내밀고 있다면 오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sup>12)</sup>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곳은 거주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못은 집 앞의 전담에 필요한 농업용수이기도 하고 화재시 소방수를 조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매우 긴요한 것이다. 못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 흘러 마을 입구의 동구를 감싸면서 빠져나간다.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는 좋은 생기를 공급하고 역할을 다하고 마을의 오수에 의해 더러워진 것으로 보아 눈에서 잘 안보이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동구의 수구처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비보수(裨補樹)를 심어 차폐하고 있다.

## 2.5 향과 동서사택의 분석

가옥의 향은 건좌산향(乾坐巽向)으로 북서쪽을 등지고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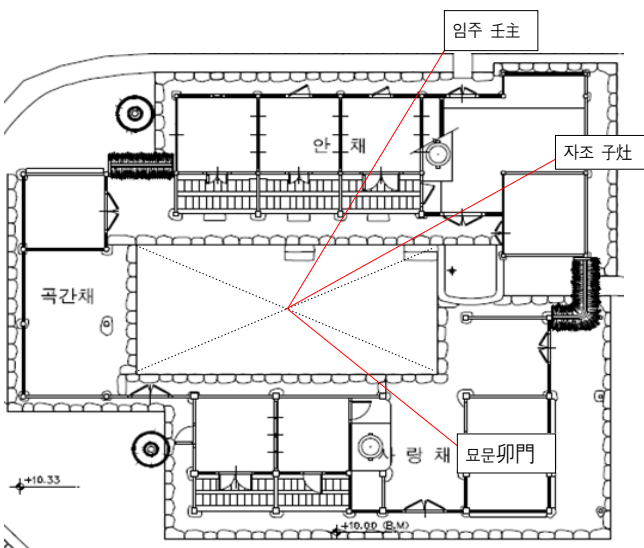


Fig. 6. Analysis of Dongseosatack(東西四宅)

풍수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양택(陽宅)이라 하고 양택의 좌향을 갖고 집의 길흉을 판단하는 이기론(理氣論)적 방법으로 동서사택론(東西四宅論)이 있다. 또한 집의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상학(家相學)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동서사택론은 양택삼요론(陽宅三要論)이라고도 하는데 동서사택론은 문주조(門主灶)로 표현되는 대문, 안방, 부엌의 향을 동사택이나 서사택으로 표현되는 한 가지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택삼요는 청나라 인물로 추정되는 조정동이 광서(光緒)6년(1880년)에 편찬한 양택삼요에 나온다. 양택삼요는 주거의 배치

12)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8~29쪽

에 있어 문주조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의 좌향을 팔괘방위에 의해 건곤간태(乾坤艮兌)를 서사택(西四宅)으로 감이진손(坎離震巽)을 동사택(東四宅)으로 나눈다. 이것이 소위 동서팔택론<sup>13)</sup>이다. 이 논리는 주역 설괘전의 천지정위 天地正位 하늘과 땅이 올바르게 자리해야 산택통기(山澤通氣, 산과 못이 기가 통한다)를 서사(西四)로 뇌풍상박(雷風相薄, 우뢰와 바람이 서로 합하지 않는다) 수화불상역(水火不相射, 수기운과 화기운은 서로를 싫어함)을 동사(東四)로 함에서 비롯된다. 이때 천지가 건곤(乾坤), 산택(山澤)이 간태(艮兌)가 되니 건곤간태(乾坤艮兌, 북서, 남서, 북동, 서)가 서사(西四)가 되고 뇌풍(雷風)이 진손(震巽, 수화(水火)가 감이(坎離)가 되니 진손감이(震巽坎離, 동, 남동, 북, 남)가 동사(東四)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괘의(掛意 괘가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간법(看法)할 때 이것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sup>14)</sup>

한반도의 경우 18세기 초반에 쓰인 흥만선의 산림경제에 동서사택이론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그 사용이 훨씬 이전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고 있다.<sup>15)</sup>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택서로 알려진 민택삼요는 손유헌이 1925년 밀양에서 출판한 역단회도조선민택삼요(易斷會圖朝鮮民宅三要)이다. 양택서의 존재는 그 전부터 있어왔겠지만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출판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그 만큼 이 시기에 민간에서 양택서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농촌의 주택경기를 반영하기도 한다.<sup>16)</sup>

가옥을 동서사택론으로 살펴보자. 중정나반간법으로 마당에 중심점을 잡고 각기 대문과 안방, 부엌의 향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

문은 묘방(卯方, 동향)으로 묘문(卯門)이다. 묘는 팔괘로 진(震, ☳)이다. 주(主)는 안방으로 임방(壬方, 북서향)에 있어 임주(壬主)이다. 임은 팔괘로 감(坎, ☵)이다. 조(灶)는 부엌으로 자방(子方)에 있어 자조(子灶)이다. 자는 팔괘로 감(坎, ☵)이다. 묘, 자, 임은 팔괘로 진, 감, 감(震, 坎, 坎)으로 동사택(東四宅)에 해당되고 서사와 혼동되지 않고 한 가지 기운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길격이다. 또한 대문과 안방을 중심으로 작괘를 하면 ☳☵ 뇌수해(雷水解)가 되며, 택명은 천을택(天乙宅)으로 식절(食節)에 해당되어 먹는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 가옥에 거주하면 재산과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7. View from the house

13) 1990년대 유럽과 미국에는 팔택이론으로 소개됨

1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8년, 289쪽

15)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137쪽

16)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년, 374쪽

동서사택의 분석을 통해 문, 주, 조가 길한 곳에 정확히 배치된 것을 볼 때 가옥의 조성시기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기존에 학계에서 본 가옥의 조성시기를 건축적인 특징을 보아 대략 19세기 초로 추정하는 데, 양택론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민택삼요가 널리 퍼진 것이 1925년 발간이후로 본다면 그 이후에 가옥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공간배치의 분석

가옥은 전면에 사랑채가 후면에 안채가 있으며 서측에 광채가 동측에 장독간과 외양간으로 사용된 부속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튼 □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열린 곳에는 문이나 담장으로 막아서 닫힌 □ 자처럼 보인다.

#### 3.1 사랑채공간

사랑채는 전면 4칸 반 측면 칸 반으로 일자형이다. 서측부터 전면에 퇴칸을 두고 사랑방 2칸이 있고 그 옆에 반칸의 아궁이 공간과 1칸의 대문간 그리고 1칸의 광채공간이 있고 그 외부로 반칸 규모의 장작 등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서측에 방을 두고 안쪽으로 대문을 구성하여 동구에서 들어오는 접근로에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한번 꺾어서 사랑방 앞의 사랑마당을 지나 대문을 통해 안채로 진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외부인들이 쉽게 안채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도한 것이기도 하고 이는 풍수적으로도 곡선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기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Fig. 8. Sarangchae

사랑채는 4각으로 살짝 다듬은 돌을 2별로 쌓아 기단을 구성한 후 초석을 놓고 각주를 사용하였다.

사랑방은 서측 한칸은 8자로 간잡이를 하였으나 옆의 한 칸은 7자로 좁게 잡고 그 옆의 반칸과 함께 시각적으로 비슷한 간잡이로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은 서측 방은 양여단이 세살문을 옆방은 외여단이 세살문을 놓아 서측방은 문이 창처럼 보이도록 하고 동측방은 문처럼 세로로 길게하여 출입문으로 주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문채는 8자로 사각형 속석으로 초석을 구성하고 한자 높이에 하인방을 놓았다. 손쉽게 들어가도록 기단 안으로 세칸의 계단을 구성하였다. 대문 옆에는 광을 두었고 바닥에 마루를 깔고 대문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두었다. 광채는 중인방 아래의 벽체를

돌을 사용하여 화방벽으로 구성하여 다른 곳보다 튼튼하게 하였다.

굴뚝은 안마당에 놓지 않고 사랑채 서측에 놓았다. 이는 안마당이 좁아 연기가 안마당에 가득차지 않게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굴뚝은 옹기 굴뚝이며 외부에는 짚으로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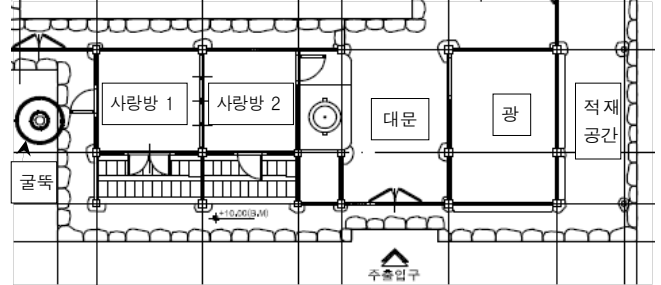


Fig. 9. Plan of Sarangchae

#### 3.2 안채공간

안채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경사진 대지를 살려 가장 높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살짝 다듬은 초석을 세별로 쌓은 후 덩뚱주초를 놓고 각주를 세웠다.



Fig. 10. Anchae

실구성은 서측에서부터 세 칸의 안방이 있고 부엌과 나뭇간이 1칸씩 있고 나뭇간 앞으로 1칸의 부엌광으로 사용된 공간이 있다. 세칸의 안방은 다른 가옥도 그렇듯이 장지문을 통해 세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한칸 또는 두칸으로 넓히거나 좁혀서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안방 2, 3에 비해 안방1은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으며 전면에도 외여단이 세살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방으로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물건을 보관하는 골방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윗목에 해당되어 다른 방보다 겨울에 온도가 낮았을 것이다.

안방 1의 서측 벽에는 크고 작은 두개의 창문이 있다. 아래는 작은 미서기 창이 위에는 좀 더 큰 벼락단이 창이 있어 여름철 실내의 열기를 머금은 상승된 공기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11 West wall of Anchaehouse and Thatched Chimney

부엌공간은 부엌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면 1칸 측면 1칸 반이지만 부엌 옆에 나뭇간을 두어 부엌의 취사와 난방을 위한 뿔감의 조달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또한 부엌 후면의 뒷문을 열면 바로 앞으로 장독대가 있다. 또한 부엌 앞에 부엌광으로 사용된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아 집의 규모에 비해 부엌과 관련된 공간이 크다. 이로 유추해 볼 때 가옥의 인근에 이 집에서 농사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돕던 식솔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 안방 1의 앞 기단 위에는 돌절구가 있다. 안방의 서측에 위치한 곡간채에서 벼를 꺼낸 후 이곳에서 절구질을 통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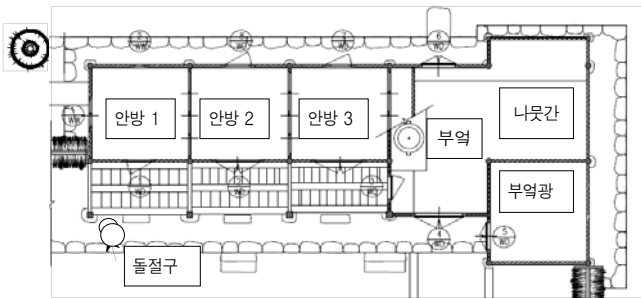


Fig. 12. Plan of Anchaehouse

### 3.3 부속채

가옥의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서측에 곡간채가 있고, 동측에는 장독광과 외양간으로 사용되던 부속공간이 있고 본채의 동측에는 화장실과 우마차수납공간 등이 있는 헛간채가 있다.

안채 서측 전면의 곡간채는 안채와 가까운 곳에는 벽으로 막고 전면에 판문을 설치한 광이 있고 그 옆에는 흙바닥으로 된 헛간이 있다. 이곳은 기둥을 원기둥으로 하였는데 이는 격을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면이 크지 않은 작은 나무기둥을 그저 꺾질만 벗기고 사용하느라 원기둥이 된 것이다.

안채 동측의 장독광과 외양간은 한때 장독을 놓고 사용했던 공간과 그 옆에 소를 키우기 위해 여물통을 설치하고 소를 치던 외양간 공간이 있다. 가까운 사랑채 아궁이에서 여물을 썬서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화장실이 있는 헛간으로 손쉽게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밖에서 열 수 있도록 판문을 설치하였다.

이들 곡간채와 부속채로 인해 가옥은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

단된 안마당을 형성하게 된다. 안마당은 가로로 길고 세로는 비교적 짧은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대지 앞뒤의 높이차이로 인해 햇빛이 안채에 충분히 들어와 양명한 환경을 연출한다. 또한 곡간채와 장독광이 있는 부속채는 단차를 수용하여 안채보다 한단씩 내려서 조성하였다.

헛간채는 서측에서부터 뒷간, 젓간, 우마차간 그리고 돼지우리로 구성되어 있고 헛간 전면에는 분뇨를 저장하기 위한 향아리를 묻고 향아리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붕을 길게 설치하였다. 뒷간의 모서리에는 독을 묻고 나무 두 개를 걸어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옆에는 젓간을 두어 변과 채를 섞어 삶힌 후 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마차간은 주로 소나 말이 끌 수 있는 마차를 보관하였던 공간으로 앞이 개방되어 있고 그 옆에는 돼지우리를 두었다. 통상 소리를 많이 내고 냄새가 발생되기 쉬운 돼지우리를 가장 멀리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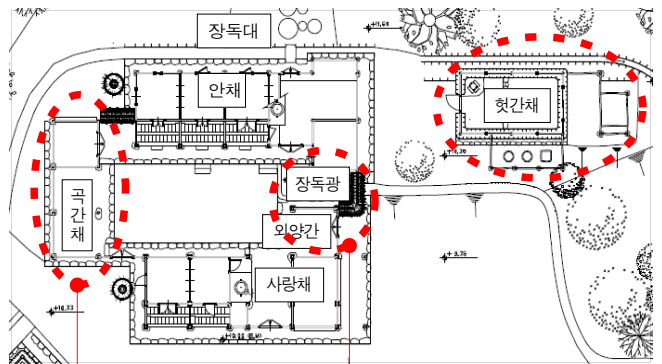


Fig. 13. Attached buildings of th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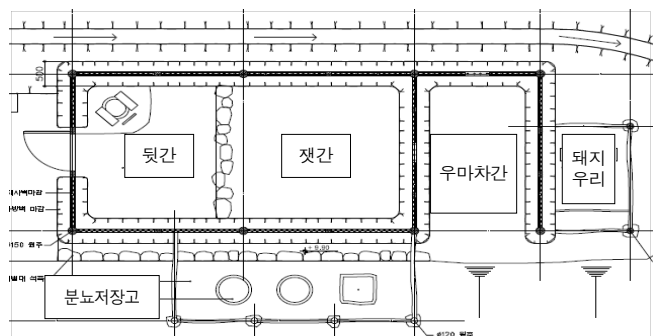


Fig. 14. Outhouse

## 4. 결론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오추2리 568번지)에 있는 정동호가옥은 정상부가 평평한 토체형의 현무봉에서 내려온 부드러운 용맥에 기대어 다소 높아 위압감을 주는 남향과 용호가

열리고 수구가 바다로 보이는 정동향을 피해 남동향으로 건좌손향(乾坐巽向)을 하고 있다. 본 가옥은 풍수에 따라 너무 높지 않은 뒷산이 있는 곳을 선정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들의 흐름을 고려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절대적인 남향배치나 오늘날 중요시하는 뷰가 훤히 열린 곳이 아닌 기운이 빠져나가는 수구를 바라보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적절히 시각적프라이머시가 확보되는 남동향을 택하고 있다.

가옥의 혈성을 살펴보면 성인은 비교적 단정하게 정체를 이루며 그 모양은 오행으로 동그런 금성혈(金星穴)이며, 금성혈중에서도 신(身)이 낮은 태음금(太陰金) 와혈(窩穴)을 이루고 있어 진기(眞氣)가 응결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혈로서 금기시 하는 조약, 준급, 용종, 허모 등을 보면 특별한 조약한 점이 없는 길지이다. 이는 혈성을 통해 주변 산의 형태를 판단하여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기운을 분석하고 흉한 부분이 없는 산들로 둘러싸인 조화로운 지형의 땅을 택하고 있다.

사격으로는 혈의 좌우로 좌청룡, 우백호의 용호가 3겹, 4겹으로 감싸고 있으며 다소 열린 부분은 마을의 안산이 막아주어 비교적 완전한 사격을 갖추고 있다. 우백호로 형성된 가옥의 안산은 금성체로 오행의 상생관계이며 높지 않고 멀리 조산이 보이는 좋은 곳이다. 이처럼 뒤와 좌우 그리고 앞이 잘 감싸여진 곳은 겨울철의 북풍으로 인한 추위와 여름철의 태풍 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노출이 쉽지 않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세는 가옥의 용호 안쪽에서 내려온 물이 가옥 앞에 모여 못을 형성하면서 기를 멈추게 하여 생기가 가옥에 머물도록 하고 있으며, 수구가 잘 보이지 않도록 비보수로 보완하여 길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동서사택론으로 대문, 안방, 부엌이 모두 동사택에 해당되는 한 가지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 배치를 하고 있다. 수세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물의 공급과 유지가 가능한 환경인지를 살피고 있다. 좌우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은 두 개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집 앞에서 감싼다는 것은 그 물로 그 안쪽공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물을 건넌다는 것은 보다 성스럽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감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이러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가옥은 풍수 형세론의 측면에서 잘 부합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전통건축물의 형세론적 입지 선정시 50미터 전후의 적절한 높이의 배산 아래 그 산에서 내려오는 좌우의 산이 감싸는 환경인지 그리고 그 배산의 안쪽 골짜기에서 가옥으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가옥을 감싸고 있는 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공간배치에 있어 조선시대 남녀공간의 분리에 따라 앞, 뒤 채로 분리하면서 기운이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실 배치도 동사택론에 따라 한 가지 기운으로 만들기 위해 대문, 안방과 부엌을 배치하고 이외의 실을 나머지 공간에 배치하였다. 일자형으로 평행하게 배치된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열린 좌우의 공간은 광채와 부속채로 막아 닫힌 □자의 배치를 만들고 있다. 이는 뒷산에서 내려온 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배치이다.

풍수의 형세론이 음양오행에 기초하여 대지를 분석하는 복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핵심은 주변 자연환경이 집

터로서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작은 추가로 구성된 본 가옥은 그 규모에 맞게 작은 뒷산과 나지막한 좌우의 산으로 겹겹히 감싸여서 강풍으로부터 건축물의 피해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용, 혈, 사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식수와 농업용수가 확보가능한 곳인지를 따져 건강하며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지를 살핀 것이다. 결국 대지주변의 지형적인 조건을 분석하는 풍수 형세론의 분석기법은 그곳에 집을 짓고 적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는 하나의 전통적인 대지분석 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3. 문화재청, 한국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39, 2012
4.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9집 예산군편, 1995
5. 서선계·서선술 저, 김동규 역, 인자수지, 명문당, 2003
6. 이왕기, 한국의 건축문화재 충남편, 기문당, 1999
7.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8.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9.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10. 한중구, 예산 김동수가옥, 계간 한옥문화 42호, 한옥문화원, 2016

접수일자 : 2019. 04. 09

수정일자 1차 : 2019. 05. 12

게재확정일자 : 2019. 05. 13